



개인대출
[뉴스]
마통·주담대 이어
전세대출까지
가계대출 옥죈다
02



Economy

| | | | |
|------------|-------------------|-----------|-------------------------|
| 코스피 | 3019.18 (0.00) | 코스닥 | 983.20 (0.00) |
| 금리 (미국 3년) | 1.633 (+0.040) | 환율 (원/달러) | 1188.70 (+4.70) (1일) |



19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가회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딸과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시스

규제 혼란에 해외투자자, 中 비중 줄인다

● **차이나 뉴스&리포트**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
“中 기업 6분의 1 불확실성 직면
형다사태로 채권 리스크도 ↑”**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데다 헝가리 사태로 채권시장 역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앞서 일본 공적연금은 중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FT중문망에 따르면 인베스코가 지난 6, 7월에 연기금과 보험사 등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을 올해 들어 빅테크 기업들을 시작으로 사교육과 부동산, 게임업계

까지 산업을 불문하고 규제 정책을 강화했으며, 기업들의 해외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 충격에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세계 경제 대국 2위의 미래에 대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조지 소로스, 캐시 우드 등은 중국 자산 보유 규모를 줄인 반면 블랙록이나 브리지워터 등은 중국 경제에 대해 여전히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상장 기업의 6분의 1 가량이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가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 채권에 대한 리스크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공적연금은 중국 국채가 세계 주요 채권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연금적립

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GPIF 같은 대형 기관이 중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FTSE는 이달 글로벌채권지수(WGBI)에 중국 국채를 편입시킨 바 있다. FTSE 리셀은 중국 채권이 WGBI에 포함되면 미화 1300억~1580억달러의 자금이 중국 국채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86%에 달한다.

GPIF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미야 조노 마사타카 이사장은 중국 국채는 국제 결제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고, 유동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이와 함께 헝가리 채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도 GPIF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실종된 비전·정책 경쟁 공방 그만, 민생 돌보아야

▶ **2022 대선 아젠다**

**화천대유·고발 사주 등 블랙홀
‘정책’ 보다 ‘약점’ 물어뜯기 바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젠다 시급
정책 10대 과제 현황 분석·제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메트로경제가 대선 아젠다를 제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뒀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여야 대선 후보 TV 토론은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 상대 후보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노렸다.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토론에서 나왔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바지라도 벗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과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 후보의 발언이 뉴스를 도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의 등락에 울고 웃으며 화제를 끌기 어렵고 자칫하면 비판만 받기 쉬운 정책 제시엔 공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의혹에 고통 받는 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더 이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과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의 해명을 듣고 싶지 않고 20대 청년이 아파트 유리 청소 작업 첫 출근에 허공에서 자신과 삶을 이어준 빗줄이 끊어져 추락사했다는 비보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을 튼튼한 빗줄을 내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적대적 갈등과 분열에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혁신적 경제, 포용적 복지, 세대 간 화합 같은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제시할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양극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좋은’ 정치, 4차산업혁명이 촉발한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추진으로 설계하는 ‘혁신적’ 경제, 미국과 중국 두 헤게모니 사이 한국의 ‘역할’, ‘집·취업·결혼·출산·육아 걱정’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전환’을 위한 획기적 해법,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 포용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이용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의 강화, 갈등이 목적이 아닌 ‘화합의 젠더 정책’ 등 지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시급하다.

메트로경제는 대선 아젠다 제시를 위해 앞으로 정치·개헌·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청년·젠더·기후/환경 등 한국 사회의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현황과 숙제를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획 4면>**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토스뱅크, 오늘 공식 출범

토스뱅크는 내일부터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금·대출 등의 은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 내 위치한 토스뱅크 사무실 모습.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 최저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가장 낮은 2.7%대, 최대 한도는 2억7000만원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 내 위치한 토스뱅크 사무실 모습. /뉴스시스

질병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협의

임상 3상서 사망 가능성 절반 줄여
美FD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 계획

머크가 개발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확진자의 입원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의 반격에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질병관리청 역시 코로나19 치료제의 선구매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머크가 진행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의 임상 3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망과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누피라비르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에 오류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치료제다.

머크는 이번 임상을 통해 7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몰누피라비르를 투여하고 입원이나 사망을 조사했다. 그 결과, 5일간 하루에 두 번 몰누피라비르를 투여받은 사람들 중 7.3%가 입원했

으며 치료 후 29일까지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약 환자의 입원율은 14.1%로 나타났다. 플라시보(위약) 그룹에서는 사망자도 8명 발생했다.

머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몰누피라비르가 연내 허가를 받는다면 전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캠프측, 김의겸 의원 ‘명예훼손’ 경찰 고발
▲윤석열, 포자 논란 재차 해명…“지우는 게 맞았다” /사진 뉴스시스

▲與 “국힘, 유동규 구속 핑계로 적반하장… 검찰수사 먼저”
▲경남 찾은 홍준표, “흠결 없는 후보” 지지 호소



▲이낙연 “당선 시 대북특사 보내 남북 대화 재개할 것” /사진 뉴스시스
▲이준석, 이재명 선긋기에 “봉고파적에 유리한치해야”